

롯데호텔 '트레비 블랙' 멤버십 혜택 대폭 강화



롯데호텔은 클럽층 투숙객에게만 개방하는 클럽라운지 서비스를 최상위 멤버십 '트레비 블랙'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븐, 멤버십 프로그램 경쟁에서 차별화, 고급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비스의 꽃' 클럽라운지를 마음껏 즐겨라!

디럭스클럽 무료 숙박권 2매 등 연회비 95만원 이상의 특전 구성 차별화된 특급호텔 서비스 제공

좀 더 고급스럽게, 남 다르게... 요즘 국내 호텔업계들은 멤버십 프로그램 경쟁이 뜨겁다. 일종의 회비를 내는 회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비스와 특전을 제공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서비스산업 분야의 기업이라면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해외여행 경험을 통해 높아진 이용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인 멤버십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감하게 바꾸었다"며 "특히 호텔에서 휴일이나 여가를 즐기는 트렌드에 맞춰 특급호텔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멤버십에 가미했다"고 소개했다.

롯데호텔은 클럽층 투숙객에게만 개방하는 클럽라운지 서비스를 최상위 멤버십 '트레비 블랙'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븐, 멤버십 프로그램 경쟁에서 차별화, 고급화를 시도하고 있다.

개별자유여행 선호... 달라진 中 관광객

단체보다 개별자유여행(FTT), 동반자는 가족과 친지, 미식과 쇼핑 선호.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노동절 연휴(4.30~5.2) 사흘간 중국 SNS 웨이보의 온라인 설문 조사와 명동, 북촌, 홍대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관광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비즈니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등을 선호했다. 특히 여행목적도 고궁, 박물관 등의 관광명소 투어도 아닌 미식이나 쇼핑 등을 더 선호했다. 또한 항공요를 제외한 여행예산은 절반 이상이 4500위안(약 80만원)이라고 응답해 다른 해외방한객에 비해 씀씀이가 컸다.

대학축제에서 '물총싸움' 한 판!

오션월드 '위터파이트' 이벤트.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는 봄철 서울의 대학축제 현장에서 '오션월드와 함께하는 위터파이트' (이하 위터파이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19일 성군관대를 시작으로 20일 서강대, 26일 고려대에서 행사를 연다.

생 400여명이 참가하는 '오션월드 위터파이트' (물총싸움)를 진행한다. 현장 참가 접수를 받은 재학생을 200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단체 물총싸움을 벌인다. 팀별 오션월드 모델에 부착된 카드가 물총 및 물풍선 공격을 통해 모두 번식되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및 접수 02)2201-5558. 강한남성 70~80세 약한발기 약한발기 부작용 없는 강한 발기 1캡슐 3~6일 지속효과 USA 아미노캡슐. 강한남자 미국정품 효과100% 후불제. 탁월한효과. 강한발기. 각종캡슐 도매가. 카드가 010-7600-4116.

강한남자 음경확대, 길이연장, 귀두확대, 조루치료. ◆주사확대술 ◆무도정관수술(포경수술) ◆치골부위용기술 ◆필러를 이용한 확대술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음경만곡(힘) 교정술. 발기부전 -봉(굴곡형) 임플란트시술로 자연스런 성생활 가능. 상담전화 02) 444-1233 하나월 남성의원

당당한 자신감! 남성수술상담. 음경 + 길이, 귀두 + 조루수술. ★주사요법 확대 ★대체 진피이식술 ★포경·무도정관수술 ★각종 이물질 제거 (바세린 등) ★음경만곡(성기) 교정술 ★발기부전수술 (굴곡형 팽창형 시술로 성생활 가능) 천호역 뉴맨남성의원 02)477-7523

2016년 신제품 외로운 밤~ 외로운 남성들을 위로해주는 나만의명품 여자친구. 신음소리에서 고성소리까지! 성인용품점이나 시중에는 없는 국산품입니다. made in korea. ★국내최고의제품절대 타지않습니다★ 실물보다 더 섹시한 공기인형 "명기" "명기"와 놀다보면 날 새는줄 모릅니다. 제품문의 1588-4101 / 010-3895-4114

강원도 '올림픽 관광객 모시기' 총력

평창올림픽 관광 준비 얼마나 했다. 정선 삼탄아트마인 등 불거리 풍성 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시급



강원도 정선 '삼탄아트마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았다. 경기장과 선수촌, 방송센터 등이 들어서 대회기간 동안 북적거릴 평창, 강릉, 정선 지역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못지않게 전통문화 유적부터 근대산업 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

강릉의 흥보체험관, 150m 높이로 대관령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알펜시아의 스키점프타워도 주목할 관광자원이다.

평창 봉평면 금당계곡의 정강원은 전통음식체험관이다. 계곡 앞에 즐비한 잔디대가 인상적인 이곳은 3만3000㎡의 부지에 전시관, 조리체험실, 발효실, 교육연수원 등을 갖추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올림픽 기간에 강원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느냐는 것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210만 명인 외국인 관광객을 2018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스피드, 피겨 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컬링 등이 열리는 강릉에는 조선시대 사대부가 주택을 대표하는 선교장이 있다. 효령대군 11대손 이내번이 처음 집을 지은 후 10대에 이르도록 증축한 주택으로 푸른 숲과 어우러진 한옥의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올림픽 기간에 강원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느냐는 것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210만 명인 외국인 관광객을 2018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정선엔 2001년 폐광한 삼척탄파 시설을 문화예술단지로 새롭게 조성해 복원한 '삼탄아트마인'이 있다. 150개국에서 수집한 10만여점의 예술품을 감상하고, 수직경도와 탄자, 광부도시락 등 과거 석탄산업의 역사와 생활상을 만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올림픽 기간에 강원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느냐는 것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210만 명인 외국인 관광객을 2018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평창올림픽 유치부터 현재의 대회 준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평창·강릉 | 김재범 전문기자